

korea1391.org

아이들의 미래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본 안내서는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1-46 (우) 135-515 대표전화: 02) 558-1391 FAX: 02)558-1339 E-mail: ncpca@korea1391.org
발행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행인: 이호균 발행일: 2006.12 편집인: 이정은, 김정희, 이계화 인쇄 및 디자인: (주) 더오름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29 아동상담 전용전화 1577-1391

korea1391.org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목 차

14 체벌에 대한 국제적 동향

10 체벌을 대신할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15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4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일까요?



체벌은 바람직한 훈육방법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훈육은 의지나 감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의 주목적을 달성하는 교육이며, **체벌**은 일정한 교육적 목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벌은 고통을 줌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가 그 행위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아동이 자각하지 않는 한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체벌의 부작용으로** 체벌을 하는 성인의 감정이 격해져 아동의 뺨을 손이나 슬리퍼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혹은 대걸레 자루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등 '사랑의 매'로는 보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의 체벌을 통해 폭력성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하기 보다는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중한 요청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동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므나” 와 같이
요청하고 아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맙구나, **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아동이 따르겠다고 해 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야, ...를 하기로 했는데
네가 잊어버린거 같구나, 어서 하렴.”

아동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중한 요청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기법인 ‘나-전달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나-전달법

정중한 요청을 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효과적입니다.



“**야!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때,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여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동의 행동에 집중합니다.
- 언성은 높이지 않되, 문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났다” 라는 표현 보다는 “속이 상하다” 또는 “걱정 된다”
“피곤하다” 등의 진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아동이 취한 행동이 상황(수업 또는 당신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를 “~하기 때문”의 말을 사용하여 설명해 줍니다.
- 당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상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 줍니다.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됩니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히라도 보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시합니다.
즉, 부정적인 행동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보상의 유형

사회적 보상	활동적 보상	물질적 보상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 하기 등	아이스크림, 공, 돈, 책, 오락기, 옷, 학용품, 장난감 등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며, 사회적 보상이 물질적 보상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물질적 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난 후에만 주십시오.

 부정적 행동에 대한 벌 : 논리적 결과, 타임아웃 등

논리적 결과

아동을 지도할 때 항상 정중한 요청 또는 ‘나-전달법’이 매번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문제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하여
논리적 결과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즉,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수반되는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방과 후 교실에 남아서 못한 숙제를 하고 집에 간다.”

이 때, 논리적 결과를 고의적인 보복행위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논리적 결과는 아동의 그릇된 행동과 연관지어 논리적으로 받게 되는 결과이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낙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공놀이를 못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논리적이 아닌 표현은 되도록 피합니다.

결과는 항상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효과적입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이란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즐거운 상황에서 아동을 즉시 격리시켜, 조용하고 지루한 타임아웃 장소에 두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관심이나 그 밖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훈육 방법은 3세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에게 적절하며, 어린 아동일수록 효과적입니다.



타임아웃 단계

평소에,

- ① 타임아웃을 사용할 한 가지 대상 행동을 선정하십시오.
- ② 타임아웃 장소로 사용할 충분한 공간(예) 생각하는 의자, 거실 모퉁이)을 선정하십시오. 아동에게 무서운 장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③ 아동에게 타임아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 행동이 나타나면,

- ④ 10초 이내에 10마디 이하를 사용하여 타임아웃 장소에 보내십시오.
- ⑤ 휴대폰 타이머를 맞추어(연령 당 1분) 아동이 들을 수 있는 곳 (1~2m가량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 ⑥ 타이머가 울리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⑦ 타이머가 울린 후, 타임아웃 장소에 간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 타임아웃이란 아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타임아웃 장소에 두어 관심이나 그 밖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체벌을 대신할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칭찬 통장

은행통장처럼 아동들 각각에게 칭찬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과제를 잘했거나 태도가 좋을 경우, 그리고 왕따 피해 친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연보호 활동을 열심히 한 경우, 또는 분실물을 습득해 신고하거나
기타 선행을 한 경우에는 스티커 형식의 칭찬머니를 줍니다.
그러나 지각하기, 떠들기, 친구와 다투기 등의 잘못을 저지르면 감액을 당합니다.

월말 또는 연말에 칭찬통장 잔액이 많은 아동들에게 잔액에 상응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집단 내 마켓을 만들어 주거나 선물을 줍니다.
또는 '청소 면제권', '우선 배식권', '원하는 자리 선택권' 등의
쿠폰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통장이 된 아동들은 '건물 벽 낙서 지우기', '바닥에 붙은 껌 떼기'
등의 벌칙을 받게 합니다.

바람직한 행동은 칭찬머니로 보상함으로써 강화되고 잘못된 행동은 칭찬머니를
감액 당함으로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칭찬 주인공

회의 시간을 할애하여 바르게 인사하기, 열심히 듣기, 감사표현하기,
의견 조율하기 등의 사회기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함께 역할극을 통해 친구들과 실습을 하게 합니다.

월말이 되면 아동들이 직접 그 달의 사회적 기술을 가장 잘 성취한 친구 한 명을
칭찬 주인공으로 뽑습니다. 칭찬 주인공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기술을 잘했는지
친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각 달의 칭찬 주인공으로 뽑힌 아동들의 사진은 게시판에 활용하여
사진을 걸어줍니다.

연말에는 칭찬 주인공들에게 물질적·사회적·활동적 보상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상하되, 보상의 내용도 칭찬 주인공을 뽑은 아동들이 함께 정하도록 합니다.

3. 칭찬 사워

매일 '오늘의 주인공'으로 한 아동을 선정해 둡니다.
번호 순 또는 자리 배치 순, 키 순, 또는 오늘의 주인공이 내일의 주인공을 지목하는 등
오늘의 주인공 선정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종례시간이 되면 하루 종일 관찰한 오늘의 주인공에게 집단의 모든 아동이
그 친구의 장점을 쪽지에 써서 전해줍니다.



1, 2, 3은 잘못된 행동을 혼내기보다는 바람직한 행동을 칭찬하는데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아동은 인정, 격려, 칭찬 등을 받을 때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인정받고 칭찬받은 행동들은 강화되고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반대로 문제행동은 줄어들게 됩니다.

4. 우리반 심계명

‘친구들과 싸우지 말기’, ‘수업시간에 떠들지 말기’, ‘지각하지 말기’ 등 집단에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과 그것을 어겼을 때 받는 벌칙을 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칙과 벌칙을 아동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선생님은 원칙과 벌칙의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 또는 조정자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지막으로 급식 받기’, ‘영어로만 말하기’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일일 주변되기’,
‘싸움을 벌인 아이들은 서로 코를 맞대고 30분간 서 있도록 하기’ 등의
기발한 벌칙 아이디어들이 아동들에게서 쏟아질 것입니다.

아동들에게서 나온 다양한 벌칙들은 ‘짱’, ‘다시 한번’ 등의 항목을
포함한 다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칙 다트 활용은 집단의
심계명을 어긴 아동이 화살을 던져 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집단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벌을 받는 아동의 수치심도
한결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원칙 및 벌칙은 명확하게 세우도록 지도하고, 10가지 원칙은
아동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벌칙은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인지를 꼭 확인합니다.



체벌의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문제행동 예방 전략

- 바라는 행동과 지침들을 명확하게 세워주세요.
이 때,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세요.
- 규칙을 세울 때는 아동을 참여시키세요.
-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규율을 실행하세요.
- 수업이든, 아동 활동 프로그램이든 아동 모두가 참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세요.
- 지속적으로 아동을 모니터링하세요. 과업을 어려워하는 아동들은 도와주고
과업을 쉽게 수행하는 아동들에게는 새로운 과업을 제시해주세요.

체벌에 대한 국제적 동향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특히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은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¹⁾는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이 관습 혹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때로는 ‘훈육’이라는 위장된 행위로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과 가족, 학교와 교육현장, 그리고 보호시설이 아동에게 체벌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환경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Pinheiro 박사에 의해 2년간 진행된 UN Study on Violence 권고안은 2009년까지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것으로 목표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 학교, 시설 등 아동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해지고 있는 폭력이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기구이다. 한국의 1, 2차 보고서 심의 후 협약에 대한 자국 내 홍보 미흡과 비준국으로서의 의무 및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문을 보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 전용전화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 전용전화
서울	중앙	1577-1391	강원도	강원	1577-1391
	서울			강원동부	
	서울동부			강원원주	
	서울강서		충청북도	충북	
	서울은평			충북북부	
	서울영등포			충북남부	
	서울성북		충청남도	충남	
	서울마포			충남남부	
부산	부산		전라북도	전북	
	부산동부			전북동부	
대구	대구			전북서부	
	대구		전라남도	전남	
인천	인천			전남목포	
	인천북부		경상북도	경북	
광주	광주			경북안동	
	광주			포항	
대전	대전			구미	
	대전		경상남도	경남	
울산	울산			경남서부	
	울산		제주도	제주	
경기도	경기			서귀포	
	경기북부				
	경기성남				
	경기부천				
	경기고양				
	경기화성				

